메시지 3

유기적인 연결과 연합된 영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음

성경: 요 15:4-5, 롬 12:4-5, 8:4, 고전 6:17, 12:12-13, 27, 빌 3:10

Ⅰ.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간다 — 요 15:4-5, 고전 1:30, 롬 12:4-5.

A.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는 그분과 사람이 함께 접붙여짐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— 롬 6:3-5.

1.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. 이러한 하나는 유기적인 연결 혹은 생명 안에서의 연결, 곧 접붙여진 생명이다 — 롬 6:3-5, 11:17-24.
2.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,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— 요 3:15, 15:4-5.

B. 로마서 12장은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,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, 즉 우리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에서 몸에 대해 말한다 — 롬 12:4-5.

1.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 곧 중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높은 중점이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의 궁극적인 항목인 몸이다 — 고전 12:12, 27, 엡 1:22-23, 4:4, 12, 16, 5:23, 30, 골 2:19.
2.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— 롬 12:4-5.
   a. '그리스도 안에서'는 항상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함축한다.
   b. 이러한 연결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, 또 그분의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게 한다.
   c. 몸이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,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산출된 유기체이다 — 고전 6:17, 12:27.
3. 몸 안에서 합당하게 유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— 롬 12:4-5.
   a. 몸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.
   b. 몸의 실지 상태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이다 — 요 15:4-5.

Ⅱ.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산다 — 롬 8:4, 고전 6:17.

A.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,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— 요 14:20, 15:4-5, 엡 3:16-21, 4:4-6.

B.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,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이다 — 눅 1:31-35, 엡 1:22-23, 4:16.

1.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한다 — 고전 6:17.
2. 복음서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를 산출했고,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했다 — 엡 1:22-23, 4:15-16.
3.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을 가진 그분의 선민과 연합시키시며, 이러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이다 — 엡 4:3, 요 17:21-23.

4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 자신들과 연합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, 하나님과 연합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— 엡 3:16-21.
5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인성과 신성,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며 하나님으로 조성된 하나님-사람들의 생활이다 — 엡 4:1-6, 15-16.

C.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.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— 롬 8:4, 12:4-5, 고전 6:17, 12:12-13, 27, 엡 2:22, 4:16, 23.
1.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두 영,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결이다(고전 2:11-16).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.
2.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,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이다. 하나님께서 행하거나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초점과 관련되어 있다 — 엡 3:9, 5, 1:17, 2:22, 4:23, 5:18, 6:18.
3.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함축된 내용들은 기묘하고도 광범위하다.
4.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함축한다 — 요 15:4-5.
5. 우리와 그분은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섞임으로써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. 우리와 그리스도는 놀랍고 살아 있는 한 실체이다 — 고전 12:12.
6.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으로, 우리는 하나님-사람의 생활, 곧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며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— 갈 2:20, 빌 1:19-21상.

Ⅲ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— 빌 3:10, 롬 12:4-5, 고전 12:12-13, 27.

A.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틀로 취하는 것이다 — 빌 3:10.
1.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위해, 자신의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— 요 6:57, 5:19, 4:34, 5:30, 7:18, 17:4.
2.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틀이며, 우리는 이 틀의 대량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 — 벧전 2:21, 롬 8:29.
3.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매일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해 죽음으로써,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해야 한다 — 눅 9:23, 요 12:25-26.

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— 빌 3:10.
1. 십자가,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의 중심과 전부이다.
2.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,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의 전환점은 십자가이다.
3. 그리스도의 연속으로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— 고전 15:31, 고후 4:10-11.

C. 우리 자신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러한 삶은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인 많은 하나님-사람들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이며, 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— 갈 4:19, 엡 4:12, 16.

D.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의 틀로 취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. 바로 이러한 종류의 단체적인 생활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 — 빌 3:10, 롬 12:5, 고전 2:2, 12:27.

ⓒ 2018 Living Stream Ministry